

# 청각장애학생의 스트레스, 자아개념, 정신건강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김진우  
(아주행동수정센터)

김진우. 청각장애학생의 스트레스, 자아개념, 정신건강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언어청각장애 연구』, 2002, 제7권, 제3호, 190-209. 본 연구는 청각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생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개념 및 정신건강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청각장애 중·고생 221명과 일반 중·고생 219명을 대상으로 하여 생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개념 및 정신건강에 관한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학생과 청각장애학생 모두 자아개념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회피적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적응과 정신건강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집단 모두 생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그리고 회피적 대처전략을 사용할수록 자아개념이 낮아지는 반면에, 접근적 대처전략을 사용할수록 자아개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학생의 경우 접근적 대처전략을 사용할 경우 스트레스와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았지만 회피적 대처전략을 사용할 경우에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학생의 경우 접근적 대처방식과 회피적 대처방식 모두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정신건강, 자아개념, 생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 I. 서 론

전통적으로 청각장애학생 교육은 청각의 손상으로 나타난 언어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보상활동에 중점을 두어왔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의사소통기술의 발달 뿐만 아니라 잠재능력의 계발과 신장, 전인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의 적용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김영옥, 2001). 이러한 동향은 언어문제의 개선이 청각장애학생 교육의 중요한 문제이지만 학교생활, 진로선택, 사회생활 및 직업적응에 있어서 심리사회적 적응 및 정신건강 문제도 해결해야 할 교육의 주요 과제임을 강조한 것으로 청각장애학생 교육의 중점이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김진우, 2002).

청각장애학생의 적응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정신건강 문제를 청각장애 그 자체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는 입장으로 청각장애학생이

일반학생에 비해 성격적 부적응의 문제를 더 많이 지니고 있다고 본다. 청각장애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면서, Meadow (1980)는 청각장애아동의 특징으로 사회적·정서적 성숙의 부족, 자신감과 주도성의 부족, 또래관계의 어려움, 공격성 등의 요인을 지적하였다. 또한 청각장애학생의 성격은 새로운 상황에서 경직되고, 타인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정서적 미성숙, 성격적 위축, 일탈된 적응능력, 고집성, 의존성, 내적 통제의 결핍 등을 보인다는 것이다(Chess & Fernandez, 1980; Levine, 1976; Meadow-Orlans, 1990; Rodda & Grove, 1987).

다른 입장의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에 따른 차이점과 제약성보다는 인간발달의 전체적인 틀을 고려한 입장으로, 청각장애학생 중에 정신건강을 유지·발전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는 청각장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이 곤란하거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 살고 있거나, 다른 장애를 중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김승국 외, 2001), 일반인들의 그릇된 이해, 교육환경, 자아개념 등에 주목하면서 청각장애학생의 심리적 특성이 환경적응적인 반응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러 측면에서 청각장애아들은 환경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들 청각장애아의 발달과정에서 행동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많은 행동문제들이 의사소통의 결여로 인한 좌절감, 청각장애에 대한 가족, 학교 및 사회의 부정적 반응, 그리고 부정적인 자아개념에서 비롯된다(Meadow, 1976).

Briccetti (1987)는 청각장애학생들은 청각장애 그 자체의 문제 외에 전형적인 청소년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에 대한 원인으로 가족 및 가정환경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았고, 이에 따른 결과로서 정서 및 행동문제, 동료관계, 정서적 불안정, 그리고 청각장애에 대한 거부, 당황 등의 반응이 문제에 포함되어 있었다.

최근에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으로 스트레스를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와 이에 대한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신유황, 2000; Anda et al., 2000; Bruns & Geist, 1984; Gad & Johnson, 1980)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청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생활에 활력을 주고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부적응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Anda et al., 2000). 심한 스트레스와 대처능력의 부족은 청소년의 자살(Cohen-Sandler, Berman & King, 1982; Anda, 1995), 우울증(Fredrich, Reams & Jacobs, 1982; Johnson & McCutcheon, 1980), 약물남용(Bruns & Geist, 1984; Gad & Johnson, 1980)

과 같은 부적응 문제들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스트레스가 행동문제와 학업수행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장애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Compas, Orosion & Grant, 1993; Dise-Lewis, 1988; Fontana & Dovidio, 1984).

장애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보다 급속한 사회의 변화와 다양한 환경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강도 또한 더 클 수 있다. 더욱이 장애학생들은 일반인들의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화로 인해 더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Annison, 1996). 특히 언어와 의사소통 문제를 가진 청각장애학생들은 일반학생에 비해 낮은 학업성취와 관계의 제한으로 좌절하거나 열등감을 쉽게 느끼며, 이러한 경험은 청각장애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하고 대인관계에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보이게 한다(김진우, 2002). 또한 이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적응의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Murphy & Corte, 1990).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인 자아개념(self-concept)은 자신과 타인, 환경에 대한 지각을 통하여 형성되는 개념으로서 개인행동의 준거가 되며, 바람직하게 형성될 경우 정신건강을 도모할 수 있고(최정훈, 1973; Piers, 1984) 또한 이는 건전한 성격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황정규, 1979).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아개념 연구에서 황문규(1987)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건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장영실(1977)은 정상집단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인 데 반하여 신경증·정신증 집단은 자아개념이 부정적이라고 하였고, 김동식(1984)은 개인의 자아개념과 정신질환은 전반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정신건강과 자아개념 간에는 일정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청각장애학생의 자아개념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주로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Obrzut, Maddock & Lee, 1999)과 청각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자아개념 차이(Garrison, Tesch & DeCaro, 1978; Stinson & Antia, 1999)에 관심을 보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일반학생에 비해 청각장애학생의 자아개념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진우(2002)는 일반학생과 청각장애학생에게 동일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두 집단의 자아개념을 비교한 결과 일반학생에 비해 청각장애학생의 전반적인 자아개념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청각장애학생의 적응과 정신건강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자아개념과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데 관심이 있었으며 적응과 정신건강의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하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청각장애학생의 적응 특성 및 정신건강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아개념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생활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관련지어 연구할 필요

성이 있다.

위의 청각장애학생의 적응과 정신건강을 자아개념, 생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관련시킨 연구로는 김진우(2002)의 청각장애학생의 스트레스, 자아개념,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 그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학생에 비해 청각장애학생의 전반적인 생활 스트레스가 높았고, 특히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회피적 대처전략이 청각장애학생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반학생에 비해 청각장애학생의 전반적 자아개념의 수준이 낮게 나타나 청각장애학생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청각장애학생의 전반적인 정신건강은 일반학생에 비해 부적응 경향을 나타냈으나 장애의 전반적인 수준 혹은 심도를 나타내는 전체심도지수(GSI)에서는 차이가 없어 정신건강 상 나타나는 증상의 양상이 일반학생과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김진우(2002)의 연구결과에 부가하여 청각장애학생들이 경험하는 생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개념 및 정신건강 문제들간의 관련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은 청각장애학생의 심리적 적응과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상담, 교육적 대책 수립 및 사회생활에서의 적응을 돕는 데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부에 재학중인 청각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정신건강, 자아개념, 생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경기지역에 재학중인 일반학교 중학생 116명, 고등학생 103명(총 219명), 서울, 인천, 경기, 충북지역에 재학중인 청각장애학교 중학생 80명, 고등학생 141명(총 221명)의 총 4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청각장애학생은 정신지체, 정서장애, 뇌성마비 등의 중복장애가 없는 단순청각장애학생이다. 연구대상의 중·고별, 성별 및 학년별 분포는 <표 - 1>과 같다.

&lt;표 - 1&gt; 청각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중·고별, 성별 및 학년별 분포

		일반학생			청각장애학생			전체		
학년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중 학 생	1학년	18	27	45	11	15	26	29	42	71
	2학년	9	19	28	13	8	21	22	27	49
	3학년	18	25	43	20	13	33	38	38	76
	전체	45	71	116	44	36	80	89	107	196
고 등 학 생	1학년	20	19	39	20	20	40	40	39	79
	2학년	23	15	38	33	26	59	56	41	97
	3학년	16	10	26	18	24	42	34	34	68
	전체	59	44	103	71	70	141	130	114	244
전체		104	115	219	115	106	221	219	221	440

## 2. 검사도구

### 가. 생활 스트레스 검사

김교현·전점구(1993)가 개발한 중학생용 생활 스트레스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74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인관계 영역과 당면과제 영역으로 구분된다. 대인관계 영역은 가족관계, 동성친구관계, 이성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로, 당면과제 영역은 학업문제, 오락 및 여가활용문제, 건강 및 신체발육문제, 일상생활문제로 나누어져 있어 총 8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질문지는 지난 6개월 동안 경험한 생활 스트레스의 빈도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경우는 0, 1-2회는 1, 그리고 2회 이상은 2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김진우·김영욱(2002)의 연구에서 청각장애학생 104명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전체척도 74문항에 대한 Cronbach  $\alpha$ 값은 .94였다.

### 나. 스트레스 대처방식 검사

김교현·전점구(1993)가 개발한 중학생용 스트레스 대처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총 45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접근적 대처전략과 회피적 대처전략으로 구분된다. 접근적 대처전략은 적극적 문제해결, 사회적 지원추구, 긍정적 비교로 구분되고 회피적 대처전략은 외적 감정 발산, 내적 감정 억제, 내적 감정 발산, 거리두기, 체념·철수전략으로 나누어진다. 이 질문지는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사용했던 각각의 대처방법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나에

대해,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에서 '매우 많이 사용했다'까지 5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김진우·김영옥(2002)의 연구에서 청각장애학생 104명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대처척도 45문항에 대한 Cronbach  $\alpha$ 값은 .92였다.

#### 다. 자아개념검사

Fitts (1965)가 제작한 Tennessee Self-Concept Scale을 기초로 하여 정원식(1968)이 제작한 자아개념검사는 현상의 장을 내적 자아준거체제와 외적 자아준거체제로 분류하였다. 내적 자아준거체제는 자아동일성, 자아수용, 자아행동으로 구분되고, 외적 자아준거체제는 신체적 자아, 도덕적 자아, 성격적 자아, 가정적 자아, 사회적 자아로 구분된다.

이 검사는 자아개념을 다면적으로 측정하고 있고 전체 검사문항이 10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원식(1968)이 60명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2주 간격으로 실시하여 얻은 이 검사의 재검사 신뢰도계수인 Cronbach  $\alpha$ 값은 .55-.91이었다.

이 검사는 전체검사문항이 많은 편이고 김기정(1984)이 아동에 적합하게 총 50문항으로 재작성하였는데 총 자아긍정에 대한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alpha$ 값은 .8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김진우(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개념검사를 사용하였는데 청각장애학생 221명을 대상으로 한 자아개념 전체척도 50문항에 대한 Cronbach  $\alpha$ 값은 .86이었다.

#### 라.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

이 검사는 9개 증상차원, 9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각각 1개의 심리적인 증상을 대표하고 있다. 이 검사는 5단계로 응답하게 되어 있고 각 증상점수의 합이 많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지 않음을 나타낸다.

간이정신진단검사의 각 증상 척도는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증,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3개 전체지표로서 전체심도지수(GSD)는 현재의 장애 수준 혹은 심도를 나타내고, 표출증상합계(PST)는 증상의 수를 나타내며, 표출증상심도지수(PSDI)는 순수한 장애의 강도를 나타낸다.

SCL-90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을 위해 164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실시하였다(김광일·김재환·원호택, 1984).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적대감 차원에서 .73, 신체화 및 정신증 차원에서 .83으로 나타나 만족할 만한 결과로 평가되었다(김재환·윤여홍, 1984).

### 3. 연구절차

일반학생과 청각장애학생 모두에게 생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개념 및 정신건강에 관한 질문지를 실시했다. 일반학교 학생의 질문지에 대한 응답은 해당학교의 교사들이 학급 단위로 하여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청각학교 학생들의 질문지에 대한 응답은 해당학교의 교사들이 실시하였는데 이들 교사는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5년 이상 근속경험이 있는 담임교사이거나 그 학교의 상담교사이다. 검사의 실시는 10-20명을 단위로 하여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청각장애학생들의 언어능력과 읽기이해수준을 고려하여 검사의 지시와 반응방법 등의 설명은 구어와 함께 수화로 하였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과 문항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질문한 경우에는 담당교사나 보조교사가 수화를 통해 의미를 알게 하였다.

### 4. 자료분석

일반학생과 청각장애학생을 구분하여 자아개념과 정신건강, 생활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스트레스 대처와 정신건강, 생활 스트레스와 자아개념, 스트레스 대처와 자아개념,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 Ⅲ. 연구결과

### 1. 자아개념과 정신건강과의 상관

여러 선행연구들(김동식, 1984; 장영실, 1977; 황문규, 1987)에서는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정신건강문제가 적고 자아개념이 낮을수록 정신건강의 문제가 많다는 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본 연구의 대상학생에게도 적용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청각장애학생의 자아개념과 정신건강 간의 상관관계를 제시한 것이 <부록 - 1>이다.

일반학생의 경우 자아개념척도는 부적응을 나타내는 간이정신진단검사척도들과 전반적으로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즉,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정신건강문제가 적고 자아개념이 낮을수록 정신건강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편집

증, 정신증, 전체심도지수(GSI), 표출증상합계(PST), 표출증상심도지수(PSDI)는 가정적 자아 및 총자아 긍정과 부적상관이 높았다. 다른 자아개념척도들에 비해 신체적 자아와 도덕적 자아는 간이정신진단검사의 척도들과 상관이 낮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학생의 경우 가정적 자아 및 총자아 긍정이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청각장애학생의 경우도 자아개념척도는 부적응을 나타내는 간이정신진단검사척도들과 부적상관을 보였다. 즉,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정신건강문제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신체화, 강박증, 불안, 편집증, 정신증, 전체심도지수(GSI)는 신체적 자아와 부적상관이 높고,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정신증, 전체심도지수(GSI), 표출증상심도지수(PSDI)는 성격적 자아와 부적상관이 높았다. 다른 자아개념척도들에 비해 도덕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는 간이정신진단검사의 척도들과 상관이 거의 없는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각장애학생의 경우 신체적 자아와 성격적 자아가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 2. 생활 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상관

여러 선행연구들(Compas, Orosion & Grant, 1993; Dise-Lewis, 1988; Fontana & Dovidio, 1984)에서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신건강문제가 많다는 점들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본 연구의 대상학생에게도 적용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청각장애학생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간의 상관관계를 제시한 것이 <부록 - 2>이다.

일반학생의 경우 스트레스척도는 부적응을 나타내는 간이정신진단검사의 모든 척도들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즉,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부적응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동성친구와의 스트레스가 간이정신진단검사의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편집증, 정신증, 전체심도지수(GSI), 표출증상합계(PST), 표출증상심도지수(PSDI) 점수와 높은 상관을 보였고, 이성친구와의 스트레스는 신체화, 공포불안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대인관계와 당면과제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당면과제 스트레스에 비해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간이정신진단검사의 모든 척도와 더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학생의 경우 스트레스 소척도에서는 동성친구 및 이성친구와의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두 요인 모두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바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당면과제 스트레스보다 일반학생의 정신건강과 부적응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청각장애학생의 경우도 스트레스 척도는 부적응을 나타내는 간이정신진단검사의 모든



척도들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즉,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부적응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성친구와의 스트레스가 간이정신진단검사의 신체화,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전체심도지수(GSI), 표출증상심도지수(PSDI) 점수와 높은 상관을 보였고, 건강 및 신체발육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강박증, 우울, 적대감, 편집증, 정신증, 표출증상합계(PST)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대인관계와 당면과제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신체화, 불안, 공포불안, 정신증, 전체심도지수(GSI), 표출증상심도지수(PSDI) 점수와 높은 상관을 보였고 당면과제 스트레스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적대감, 편집증, 정신증, 전체심도지수(GSI), 표출증상합계(PST) 점수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각장애학생의 경우 스트레스 소척도에서는 이성친구, 건강 및 신체발육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당면과제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스트레스 모두가 유사한 비율로 정신건강과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정신건강과의 상관

여러 선행연구들(Anda, 1995; Bruns & Geist, 1984; Fredrich, Reams & Jacobs, 1982)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문제가 있을수록 정신건강에 문제가 많다는 점들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본 연구의 대상학생에게도 적용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청각장애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정신건강간의 상관관계를 제시한 것이 <부록 - 3>이다.

일반학생의 경우 스트레스 대처척도는 부적응을 나타내는 간이정신진단검사의 척도들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기도 하고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접근적 대처전략을 사용한 경우보다 회피적 대처전략을 사용한 경우에 간이정신진단검사의 거의 모든 척도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내적감정억제 전략은 신체화, 대인예민성, 우울,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전체심도지수(GSI), 표출증상합계(PST) 점수와 높은 상관을 보였고 체념·철수 전략은 신체화, 강박증, 불안, 적대감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요약하면 일반학생의 경우 내적감정억제 전략과 체념·철수 전략이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접근적 대처방식보다 회피적 대처방식을 사용할수록 정신건강과 부적응의 문제가 많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청각장애학생의 경우 스트레스 대처척도는 부적응을 나타내는 간이정신진단검사의 척

도들과 일반학생에 비해 더 높은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경향을 나타냈다. 접근적 대처전략을 사용한 경우보다 회피적 대처전략을 사용한 경우에 간이정신진단검사의 거의 모든 척도와 더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청각장애학생의 경우에도 접근적 대처전략보다는 회피적 대처전략을 사용할수록 부적응 문제가 많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접근적 대처방식도 모든 정신건강척도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는 바 청각장애학생의 경우 접근적 대처방식도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하며 청각장애학생이 일반학생에 비해 접근적 대처방식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내적감정억제 전략은 신체화, 강박증, 우울, 불안, 적대감, 전체심도지수(GSI), 표출증상합계(PST), 표출증상심도지수(PSDI) 점수와 높은 상관을 보였고 체념·철수 전략은 대인예민성, 편집증, 정신증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각장애학생의 경우에도 내적감정억제 전략과 체념·철수 전략이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 4. 생활 스트레스와 자아개념간의 상관

여러 선행연구들(김진우, 2002; Annison, 1996)에서는 스트레스와 자아개념 간의 관련성을 제기하고 있다. 즉,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면 자아개념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검증해보기 위해 청각장애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아개념 간의 상관을 제시한 것이 <부록 - 4>이다.

일반학생의 경우 생활 스트레스 척도는 자아개념 척도들과 부적의 상관을 보이는 경향을 나타냈다. 즉, 생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개념은 낮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트레스와 부적상관을 많이 보이는 자아개념 척도들은 내적자아준거체제에서는 자아수용, 외적자아준거체제에서는 가정적 자아 척도였다.

청각장애학생의 경우도 생활 스트레스 척도는 자아개념 척도들과 부적의 상관을 보이는 경향을 나타냈지만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고 일반학생들에 비해 그 상관의 정도가 약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을 많이 보이는 자아개념 척도들은 내적 자아준거체제에서는 자아동일성, 외적자아준거체제에서는 성격적 자아척도였다.

#### 5.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자아개념 간의 상관

위의 연구결과에서는 자아개념, 정신건강,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

냈고 정신건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그렇다면 자아개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에도 상관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검증해보기 위해 청각장애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자아개념 간의 상관을 제시한 것이 <부록 - 5>이다.

일반학생의 경우 스트레스 대처척도는 자아개념 척도들과 정적·부적상관 모두를 나타냈는데 접근적 대처전략과는 정적인 상관을, 회피적 대처전략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다. 즉, 접근적 대처전략을 사용하면 자아개념이 높아지고 회피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면 자아개념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트레스 대처전략은 자아개념척도의 내적 자아준거체제에서는 자아행동과 외적 자아준거체제에서는 가정적 자아와 가장 많은 상관을 보였다.

청각장애학생의 경우에도 스트레스 대처척도는 자아개념 척도들과 정적·부적상관 모두를 나타냈는데, 접근적 대처전략과는 정적상관을 나타낸 반면에 회피적 대처전략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다. 즉, 일반학생과 마찬가지로 접근적 대처전략을 사용하면 자아개념이 높아지고 회피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면 자아개념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청각장애학생의 스트레스 대처전략은 자아개념 척도의 내적 자아준거체제에서는 자아동일성과, 외적 자아준거체제에서는 성격적 자아와 가장 많은 상관을 보였다.

## 6. 생활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상관

위의 연구결과에서는 자아개념, 정신건강,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고 정신건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그리고 자아개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에도 상관을 나타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의 관련성도 가정해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검증해보기 위해 청각장애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척도 간의 상관을 제시한 것이 <부록 - 6>이다.

일반학생의 경우 스트레스 척도는 스트레스 대처척도들과 정적상관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는데, 접근적 대처전략과는 상관이 거의 없었으나 회피적 대처전략과 거의 모든 스트레스 척도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즉, 일반학생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접근적인 대처방식보다 회피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할 때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당면과제 스트레스 모두 접근적 대처방식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회피적 대처방식과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회피적 대처

방식을 사용할수록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당면과제 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청각장애학생의 경우 접근적 대처전략 및 회피적 대처전략과 거의 모든 스트레스 척도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청각장애학생의 경우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으로 접근적인 대처방식보다 회피적인 대처방식과 스트레스 척도와의 상관이 높은 것으로 보아 접근적인 대처방식보다 회피적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더 유발시키고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 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일반학생과 청각장애 중·고생을 대상으로 생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개념 및 정신건강 간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으로써, 청각장애학생의 적응과 정신건강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개념과 정신건강의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 일반학생과 청각장애학생 모두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이나 부적응 문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러 선행연구들(김동식, 1984; 장영실, 1977; 황문규, 1987)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일반학생의 경우 가정적 자아가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기 가정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있고 가정에서 불화나 갈등이 없는 것이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청각장애학생의 경우 신체적 외모, 건강상태 등을 나타내는 신체적 자아와 안정·불안정의 성격을 나타내는 성격적 자아가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정적 자아보다는 신체적 외모, 건강상태와 안정적인 성격이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 일반학생과 청각장애학생 모두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정신건강이나 부적응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러 선행연구들(Compas, Orosion & Grant, 1993; Dise-Lewis, 1988; Fontana & Dovidio, 1984)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일반학생의 경우 동성친구 및 이성친구와의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 요인 모두 당면과제보다는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반영하는 바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일반학생의 정신건강에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에 청각장애학생의 경우 이성친구, 건강 및 신체발육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냈으며,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당면과제 스트레스가 유사한 비율

로 정신건강과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학생에 비해 청각장애학생이 외모나 신체발육문제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인해 과제 수행의 어려움을 보일 것임을 가정할 때 당면과제 스트레스도 청각장애학생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여러 선행연구들(Anda, 1995; Bruns & Geist, 1984; Fredrich, Reams & Jacobs, 1982)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문제가 있을수록 정신건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 일반학생의 경우, 접근적 대처방식은 정신건강과 관련성이 거의 없는데 반해 회피적 대처전략을 사용한 경우에 부적응 문제가 많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청각장애학생의 경우에도 접근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한 경우보다 회피적 대처전략을 사용할수록 부적응 문제가 많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청각장애학생의 경우 접근적 대처방식도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일반학생에 비해 청각장애학생이 접근적 대처방식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학생과 청각장애학생 모두 하위척도에서는 내적감정억제 전략과 체념·철수 전략이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집단 모두 내적감정억제 전략과 체념·철수 전략 즉, 감정을 억압하며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대처전략임을 시사한다.

넷째, 여러 선행연구들(김진우, 2002; Annison, 1996)에서는 스트레스와 자아개념 간의 관련성을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학생과 청각장애학생 모두 생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개념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다섯째, 스트레스 대처와 자아개념 간의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 일반학생과 청각장애학생 모두 접근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면 자아개념이 높아지고 회피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면 자아개념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여섯째,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의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 일반학생의 경우 접근적 대처전략을 사용할 경우 스트레스와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았지만 회피적 대처전략을 사용할 경우에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접근적 대처전략보다는 회피적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청각장애학생의 경우 접근적 대처전략이나 회피적 대처전략을 사용할수록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청각장애학생의 경우, 접근적 대처방식과 회피적인 대처방식 모두가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지만, 접근적 대처방식보다 회피적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더 유발시키고 정신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학생과 청각장애학생 모두 자아개념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회피적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적응과 정신건강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집단 모두 생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그리고 회피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할수록 자아개념이 낮아지는 반면에 접근적 대처전략을 사용할수록 자아개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두 집단 모두 접근적 대처전략보다 회피적 대처전략을 사용할 경우에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들이 시사하는 것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청각장애학생의 정신건강에 유익하고 자아개념을 적절히 유지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청각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개념, 정신건강 간의 관련성만을 파악하는 데 그치고 인과관계를 밝히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청각장애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김광일·김재환·원호택(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 출판부.
- 김교현·전경구(1993). 중학생용 생활 스트레스와 대처 척도의 개발연구 I.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2, 197-217.
- 김기정(1984). 학업성취와 지각된 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동식(1984). 정신질환집단과 정상집단의 가정환경 및 자아개념의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국·김영옥·황도순·정인호(2001). 『청각장애아동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김영옥(2001). 『청각장애아동 교육의 이해』. 서울: 양지사.
- 김재환·윤여홍(1984). 간이정신진단검사의 신뢰도 및 요인불변성. 『정신건강연구』, 3, 166-171.
- 김진우·김영옥(2002). 청각장애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대처방식. 『언어청각장애연구』, 7(1), 182-202.
- 김진우(2002). 청각장애학생의 스트레스, 자아개념,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유황(2000).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원인에 따른 대처양식. 『아동교육』, 9, 121-129.
- 장영실(1977). 신경·정신성집단과 정상집단의 자아개념에 대한 비교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원식(1968). 『자아개념검사 검사법 요강』. 서울: 코리안 테스트 센터.
- 최정훈(1973). 『지각심리학-인간행동의 이해』. 서울: 을유문화사.
- 황문규(1987). 자아개념과 MMPI와의 관계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정규(1979). 『한국학생의 의식구조-차이와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교육문제 연구소.
- Anda, D. (1995). *Adolescents: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9th ed.). Silver Spring, MD: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 Anda, D., Baroni, S., Boskin, S., Buchwald, L., Morgan, J., Ow, J., Gold, J. & Weiss, R. (2000). Stress, stressors and coping among high school student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2*, 441-463.
- Annisson, J. (1996). The experience of disability. In J. Annisson, J. Jenkinson, W. Sparrow & E. Bethune (Eds.), *Disability: A guide for health professionals*. Melbourne: Nelson.
- Briccetti, K. A. (1987). Mental health services for deaf students in California. *American Annals of the Deaf, 132*, 280-282.
- Bruns, C. & Geist, C. S. (1984). Stressful life events and drug use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Human Stress, 9*, 135-139.
- Chess, S. & Fernandez, P. (1980). Impulsivity in rubella deaf children: A longitudinal study. *American Annals of the Deaf, 125*, 505-509.
- Cohen-Sandler, R., Berman, A. L. & King, R. A. (1982). Life stress and symptomatology: Determinants of suicidal behavior in children.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1*, 178-186.
- Compas, B. E., Orosion, P. G. & Grant, K. E. (1993). Adolescent stress and coping: Implications for psychopathology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16*, 331-349.
- Dise-Lewis, J. E. (1988). The life events and coping inventory: An assessment of stress in children. *Psychosomatic Medicine, 50*, 484-499.
- Fitts, W. H. (1965). Tennessee Self-Concept Scale.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Fontana, A. & Dovidio, J. F. (1984).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school related performances of type A and type B adolescents. *Journal of Human Stress, 10*, 50-54.
- Fredich, W., Reams, R. & Jacobs, J. (1982).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1*, 403-407.
- Gad, M. T. & Johnson, J. H. (1980). Correlates of adolescent life stress as related to race, SES, and level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iatry, 9*, 13-16.
- Garrison, W. M., Tesch, S. & DeCaro, P. (1978). An assessment of self-concept levels among post-secondary deaf adolescents. *American Annals of the Deaf, 123*, 968-975.
- Johnson, J. H. & McCutcheon, S. M. (1980). Assessing life stress in older children and adolescents: Preliminary findings with the life events checklist. In I. G. Sarason & C. D. Spielberger (Eds.), *Stress and anxiety*. Washington, DC: Hemisphere.
- Levine, E. (1976). Psychological contributions. *The Volta Review, 78*, 23-33.
- Meadow, K. P. (1976).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of deaf persons. *Journal of Rehabilitation of the Deaf, 9*, 1-12.
- Meadow, K. P. (1980). *Meadow/Kendall Social-Emotional Assessment Inventory for Deaf Students*.

-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 Meadow-Orlans, K. (1990). Research on developmental aspects of deafness. In D. Moores & K. Meadow-Orlans (Eds.), *Educational and developmental aspects of deafness*.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 Murphy, L. & Corte, S. (1990). School-related stress and the special child. *Special Parent/Special Child*, 6, 1-8.
- Obrzut, J., Maddock, G. & Lee, C. (1999). Determinants of self-concept on deaf and hard of hearing children.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Physical Disabilities*, 11, 237-249.
- Piers, E. V. (1984). Piers-Harris Children's Self-Concept Scale: Revised Manual.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Rodda, M. & Grove, C. (1987). *Language, cognition, and deafnes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Stinson, M. & Antia, S. (1999). Considerations in educating deaf and hard of hearing students in inclusive setting.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4(3), 163-175.



## &lt;부록 - 1&gt; 청각장애학생의 자아개념척도와 정신건강척도와의 상관

	신체화	강박증	대인 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 불안	편집증	정신증	GSI	PST	PSDI
자아동일성	-.20**	-.21**	-.18**	-.27**	-.20**	-.23**	-.12	-.15*	-.21**	-.24**	-.20**	-.19**
자아수용	-.18**	-.27**	-.25**	-.30**	-.22**	-.25**	-.03	-.19**	-.27**	-.26**	-.18**	-.25**
자아행동	-.17*	-.26**	-.22**	-.30**	-.21**	-.22**	-.11	-.20**	-.20**	-.25**	-.22**	-.20**
총자아긍정	-.21**	-.28**	-.24**	-.33**	-.24**	-.27**	-.10	-.20**	-.25**	-.28**	-.23**	-.24**
신체적 자아	-.26**	-.30**	-.26**	-.29**	-.31**	-.19**	-.12	-.24**	-.28**	-.29**	-.25**	-.23**
도덕적 자아	-.06	-.11	-.11	-.13	-.05	-.19**	.05	-.03	-.11	-.10	-.02	-.17**
성격적 자아	-.21**	-.30**	-.29**	-.35**	-.24**	-.25**	-.09	-.21**	-.28**	-.29**	-.20**	-.31**
가정적 자아	-.16*	-.25**	-.20**	-.29**	-.20**	-.26**	-.11	-.20**	-.20**	-.24**	-.26**	-.14*
사회적 자아	-.09	-.09	-.04	-.15*	-.08	-.08	-.09	-.07	-.07	-.10	-.09	-.05

\* $p < .05$ , \*\* $p < .01$ 

## &lt;부록 - 2&gt; 청각장애학생의 스트레스 척도와 정신건강척도와의 상관

	신체화	강박증	대인 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 불안	편집증	정신증	GSI	PST	PSDI
가족 관계	.24**	.31**	.31**	.28**	.28**	.30**	.18**	.26**	.32**	.32**	.31**	.25**
동성 친구	.23**	.33**	.41**	.32**	.36**	.31**	.20**	.34**	.32**	.36**	.32**	.31**
이성 친구	.33**	.39**	.44**	.39**	.38**	.39**	.28**	.38**	.42**	.44**	.38**	.35**
교사	.30**	.33**	.31**	.27**	.34**	.31**	.24**	.32**	.38**	.37**	.35**	.30**
학업 문제	.26**	.41**	.38**	.28**	.32**	.33**	.18**	.33**	.36**	.36**	.39**	.26**
오락·여가활동	.24**	.40**	.36**	.35**	.35**	.35**	.17**	.35**	.35**	.38**	.37**	.31**
건강·신체발육	.30**	.42**	.41**	.39**	.37**	.39**	.24**	.38**	.43**	.43**	.47**	.30**
일상 생활	.24**	.30**	.35**	.28**	.29**	.29**	.19**	.30**	.35**	.34**	.33**	.26**
대인 관계	.33**	.41**	.44**	.38**	.41**	.40**	.27**	.39**	.44**	.45**	.41**	.36**
당면 과제	.31**	.45**	.45**	.39**	.40**	.41**	.23**	.40**	.44**	.45**	.47**	.34**

\* $p < .05$ , \*\* $p < .01$

<부록 - 3> 청각장애학생의 스트레스 대처척도와 정신건강척도와의 상관

	신체화	강박증	대인 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 불안	편집증	정신증	GSI	PST	PSDI
적극적문제해결	.23**	.34**	.39**	.30**	.31**	.21**	.20**	.35**	.32**	.35**	.22**	.36**
외적감정발산	.32**	.36**	.42**	.33**	.39**	.36**	.29**	.38**	.38**	.41**	.35**	.36**
사회적지원추구	.21**	.18**	.26**	.23**	.27**	.18**	.23**	.22**	.23**	.27**	.22**	.27**
내적감정억제	.38**	.56**	.51**	.54**	.50**	.43**	.33**	.46**	.50**	.55**	.44**	.50**
내적감정발산	.30**	.40**	.39**	.42**	.40**	.23**	.29**	.35**	.34**	.41**	.33**	.36**
거리두기	.29**	.49**	.47**	.50**	.38**	.34**	.27**	.43**	.43**	.47**	.34**	.46**
체념·철수	.34**	.53**	.55**	.51**	.47**	.38**	.30**	.53**	.53**	.53**	.40**	.47**
긍정적 비교	.31**	.40**	.39**	.37**	.40**	.29**	.35**	.38**	.40**	.42**	.36**	.36**
접근적 대처	.29**	.36**	.41**	.35**	.38**	.26**	.31**	.37**	.37**	.40**	.31**	.38**
회피적 대처	.41**	.59**	.59**	.59**	.55**	.44**	.38**	.54**	.55**	.60**	.47**	.54**

\* $p < .05$ , \*\* $p < .01$

<부록 - 4> 청각장애학생의 스트레스 척도와 자아개념검사척도와의 상관

	가족	동성 친구	이성 친구	교사	학업	오락· 여가	건강· 신체발육	일상 생활	대인 관계	당면 과제
자아동일성	-.21**	-.27**	-.19**	-.17*	-.20**	-.17*	-.25**	-.05	-.25**	-.20**
자아수용	-.15*	-.26**	-.09	-.10	-.21**	-.15*	-.20**	.01	-.18**	-.17*
자아행동	-.17*	-.24**	-.20**	-.17*	-.20**	-.14*	-.24**	.02	-.23**	-.17*
총자아긍정	-.20**	-.29**	-.18**	-.17*	-.23**	-.18**	-.27**	-.01	-.26**	-.20**
신체적자아	-.09	-.24**	-.07	-.12	-.19**	-.11	-.21**	-.06	-.16*	-.17*
도덕적자아	-.10	-.17*	-.11	-.15*	-.13	-.10	-.20**	.00	-.16*	-.13
성격적자아	-.18**	-.25**	-.18**	-.14*	-.23**	-.21**	-.25**	-.06	-.23**	-.23**
가정적자아	-.28**	-.24**	-.22**	-.13*	-.18**	-.19**	-.21**	.02	-.27**	-.17*
사회적자아	-.06	-.17**	-.04	-.07	-.12	-.02	-.11	.06	-.10	-.05

\* $p < .05$ , \*\* $p < .01$

## &lt;부록 - 5&gt; 청각장애 학생의 스트레스 대처척도와 자아개념척도와의 상관

	적극적 문제해결	외적 감정발산	사회적 지원추구	내적 감정억제	내적 감정발산	거리두기	체념 · 철수	긍정적 비교	접근적 대처	회피적 대처
자아동일성	.25**	.01	.30**	-.21**	.09	-.20**	-.02	.06	.23**	-.07
자아수용	.20**	.06	.23**	-.26**	.03	-.25**	-.17*	.04	.18**	-.14*
자아행동	.17*	.01	.24**	-.21**	.04	-.25**	-.11	.04	.17*	-.12
총자아긍정	.24**	.03	.29**	-.26**	.06	-.26**	-.11	.05	.22**	-.12
신체적자아	.10	.02	.09	-.22**	-.05	-.18**	-.16*	-.04	.06	-.15*
도덕적자아	.16*	.01	.19**	-.14*	.10	-.18**	-.07	.05	.16*	-.06
성격적자아	.13	-.04	.14*	-.35**	-.13	-.36**	-.23**	-.04	.08	-.28**
가정적자아	.21**	-.02	.32**	-.18**	.09	-.16*	-.01	.08	.23**	-.06
사회적자아	.28**	.15*	.29**	-.05	.21**	-.08	.05	.14*	.27**	.08

\*  $p < .05$ , \*\*  $p < .01$ 

## &lt;부록 - 6&gt; 청각장애 학생의 스트레스 척도와 스트레스 대처척도와의 상관

	적극적 문제해결	외적 감정발산	사회적 지원추구	내적 감정억제	내적 감정발산	거리두기	체념 · 철수	긍정적 비교	접근적 대처	회피적 대처
가족	.28**	.29**	.15*	.24**	.16*	.30**	.26**	.26**	.26**	.31**
동성친구	.20**	.23**	.07	.33**	.13*	.37**	.29**	.24**	.20**	.33**
이성친구	.25**	.29**	.17*	.36**	.20**	.37**	.34**	.23**	.25**	.39**
교사	.19**	.20**	.09	.32**	.17*	.34**	.23**	.16*	.17*	.31**
학업	.12	.22**	.11	.26**	.14*	.34**	.34**	.17*	.16*	.32**
오락·여가활동	.28**	.30**	.18**	.36**	.19**	.35**	.41**	.24**	.27**	.40**
건강·신체발육	.25**	.28**	.22**	.23**	.19**	.31**	.33**	.31**	.30**	.34**
일상생활	.32**	.31**	.29**	.26**	.23**	.24**	.33**	.26**	.34**	.35**
대인관계	.28**	.31**	.14*	.38**	.20**	.42**	.34**	.27**	.27**	.41**
당면과제	.30**	.34**	.24**	.34**	.22**	.37**	.42**	.29**	.32**	.42**

\*  $p < .05$ , \*\*  $p < .01$

ABSTRACT

## Correlations among Stresses, Self-concepts, and Mental Health Problems of Hearing-Impaired Students

Jin Woo Kim (Ajou Behavior Modification Cente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rrelations among the life stresses, coping strategies, self-concepts, and mental health problems of hearing-impaired students. Four different questionnaires measuring four classifying variables, i.e., life stresses, coping strategies, self-concepts, and mental health problems, were administered to 219 normal and 221 hearing-impaired stud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s self-concepts decreased, as the life stresses were frequently experienced, and as more passive stress coping strategies were used, a number of problems in the adjustment and mental health were found for both hearing-impaired and normal students. Second, self-concepts decreased as experiencing more life stresses and using the passive stress strategies for both groups. However, self-concepts increased as using the active stress coping strategies for both groups. Third, for normal students, no stress was experienced when using the active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high stress was experienced when using the passive stress coping strategies. For hearing-impaired students, using both the active and passive stress coping strategies increased the life stresses.

**Key Words:** mental health, self-concept, life stress, stress coping strategy

---

▶ 게재 신청일: 2002년 9월 30일

▶ 게재 확정일: 2002년 11월 12일

▶ 김진우: 아주행동수정센터 소장, e-mail: jjjwww@unitel.co.kr